

2011. 2

가정예배 · 구역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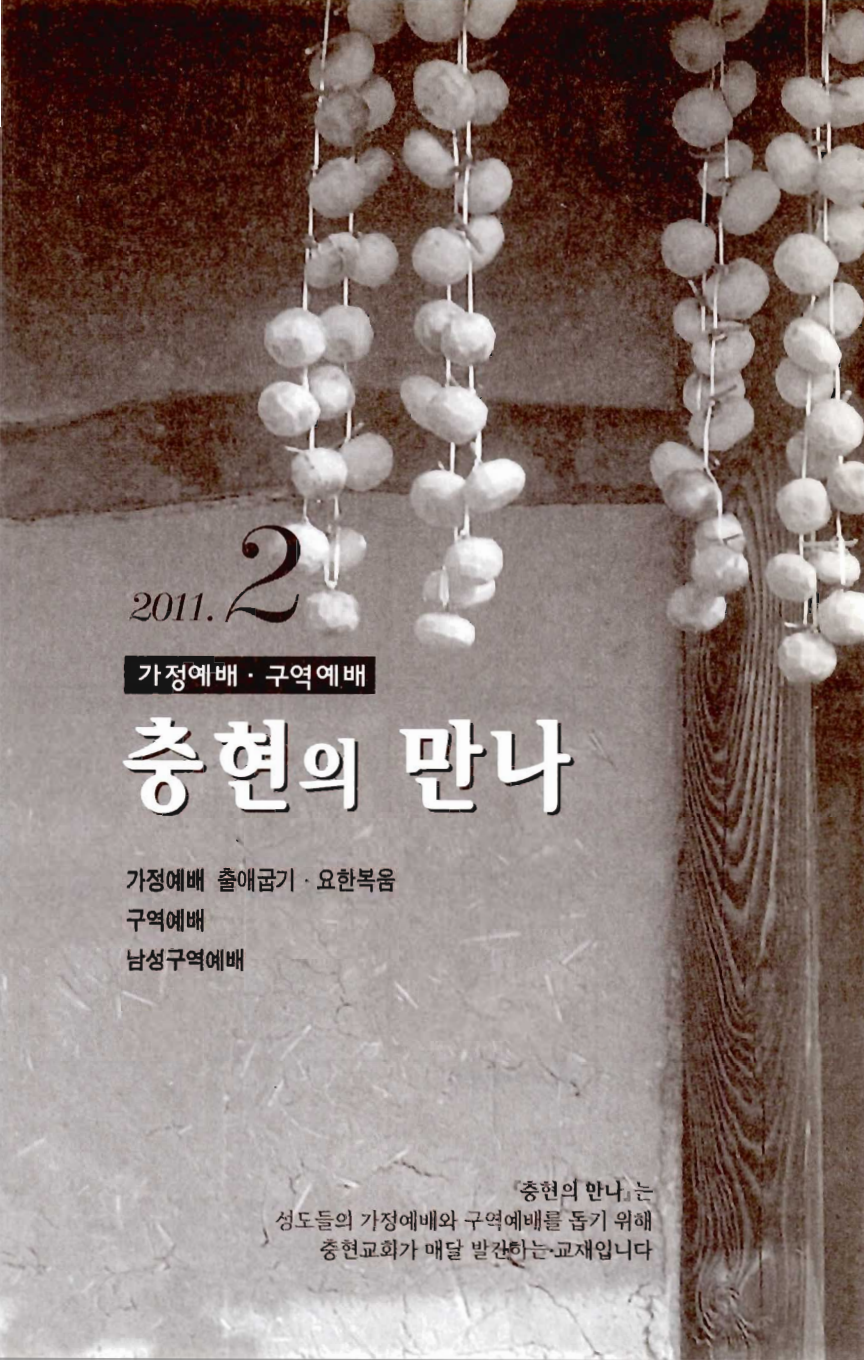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출애굽기 · 요한복음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2011. 2

가정예배 · 구역예배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출애굽기 · 요한복음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2

2011
February

주 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1 출애굽기 13장	2 출애굽기 14장
6 출애굽기 18장	7 출애굽기 19장	8 출애굽기 20장	9 출애굽기 21장
13 출애굽기 25장	14 출애굽기 26장	15 출애굽기 27장	16 출애굽기 28장
20 출애굽기 32장	21 출애굽기 33장	22 요한복음 15장	23 요한복음 16장
27 요한복음 20장	28 요한복음 21장		

March

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Memo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 출애굽기 15장

4 출애굽기 16장

5 출애굽기 17장

교회 주요일정

2월 25일

제1차 청지기훈련

2월 27일

제1차 학습세례식

10 출애굽기 22장

11 출애굽기 23장

12 출애굽기 24장

나의 주요일정

17 출애굽기 29장

18 출애굽기 30장

19 출애굽기 31장

24 요한복음 17장

25 요한복음 18장

26 요한복음 19장

- 1 2011년 제1차 청지기훈련(2월 25일 금요일, 7시)에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여 참석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 2 2011년, 충현의 모든 성도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요 3:5)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 3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 4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 5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6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 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 7 1년 1인 1명(1·1·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 8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9 충현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양로원, 함양충현농원) 및 준공된 자연장(납골시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2)가 되게 하소서.
- 10 2011년 겨울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풍성한 말씀의 잔치(딤후 3:16)가 되게 하소서.

지금, 믿음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무익한 탐구를 멈추고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소망, 무한한 만족을 주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 6:35).

지금 당장,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완전한 만족을 주십니다.

이 큰 은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 두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은총들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믿음의 실천은 지금, 즉시 필요합니다.

2011년 2월을 맞이하여 위임목사 김성관

● ● ● 가정예배 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낭독 사회자
기 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남부침례교인 모임 후원

1998년 1월 1일 발행

제1호

가 정 예 배

매일 성경묵상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광야 길로 인도하신 주님

출애굽기 13장 · 찬송가 376장

가나안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은 블레셋 땅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블레셋 길이 아닌 먼 홍해의 광야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18절).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17절)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광야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광야 길은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며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던 백성들이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즉,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광야 길을 걷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친히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야 하는 믿음과 순종이 요구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길이 필수적이었듯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광야 길은 필수적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며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아야 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좇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출 13:18)

기도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① 광야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을 믿으며 순종함으로 걷게 하소서. ② 2011년, 충현의 모든 성도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요 3:5)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친히 싸워주시는 주님

출애굽기 14장 · 찬송가 382장

2

수요일

출애굽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변한 바로가 특별히 선발된 병거 육백 대를 포함한 애굽의 모든 병거를 이끌고, 수많은 마병과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에는 검푸른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적들과 상황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대적들 앞에서 했던 일이란 고작 모세를 원망하고 질타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11~12절). 백성들의 두려움과 원망은 그들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에서 나온 죄악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그들에게 “가만히 있을지니라”(14절)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하는 것을 그쳐야만 했고 원망하는 것도 그쳐야 했습니다. 오로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두려워하며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행하실 역사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고백처럼 성도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자’(벧전 1:5)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출 14:14)

기도제목

① 친히 싸워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근심, 걱정을 내려놓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치료하시는 주님

출애굽기 15장 · 찬송가 399장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광야 길을 걸어왔지만 마실 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마라에 이르러 물을 발견하였지만 그 물조차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22~23절). 그들이 발견한 물은 아무 쓸모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또 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25절). 이토록 놀라운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은 스스로를 “치료하는 여호와”(26절)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마라의 '쓴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쓴 뿌리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히 12:15)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인생의 쓴 물을 단 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고통당하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생의 쓴 물을 단 물로 바꾸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실로 그의 치료는 타락하여 부패한 자를 영과 마음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하는 치료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가 되십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출 15:26)

기도제목

① 마라의 쓴 물 같은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소서. ② 2011년 겨울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풍성한 말씀의 진치(딤후 3:16)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

출애굽기 16장 · 찬송가 205장

4

금요일

신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회상하며 그들의 굶주림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1~3절). 백성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변함없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35절).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은 양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었으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15절)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자력으로서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주신 만나를 먹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나는 참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또 만나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양식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요 6:48~51).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어야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성도들은 ‘생명의 떡’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십 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출 16:35)

기도제목

① 참 생명의 양식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총을 내려 주소서. ② 2011년 제1차 청지기훈련(2월 25일 금요일, 7시에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여 참석하도록 은혜를 베풀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신 광야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에 장막을 쳤지만 그곳에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1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의 쓴 물 사건'에 이어 또 다시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갈증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며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2~3절). 이는 모세를 향한 원망 이라기보다는 그를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고 불평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2절). 이는 하나님의 존재와 인도하심 자체에 대한 의심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이제껏 그들을 모든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인도 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다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패역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그들의 불신앙과 패역함을 드러 내었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구멍이 타들어 갈 정도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은 오늘날 강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혹시 세상 일에 억눌려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불평과 불만이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영원히 갈하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 이더라”(출 17:7)

기도제목

① 하나님을 원망하는 패역한 입술이 아닌 고난 중에서도 주를 신뢰하며 감사의 찬양을 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보배도 하나,

주님도 하나

시선도 하나,

“저는 주님께 갑니다.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일편단심과 단순함이 필요할 뿐입니다. 보배도 하나, 시선도 하나, 주님도 하나면 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정글로 들어간 짐 엘리엇 선교사는 1956년 에콰도르 아우카 인디언족에게 복음을 전하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었다. 그녀가 남편의 뒤를 따라 남편이 죽임을 당했던 그곳의 선교사로 지원했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일 년간 간호사 훈련을 받고 아우카족에게로 갔는데, 여자를 해치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한 아우카족은 다행히 그의 부인을 죽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런 사실도 모른 채 목숨을 걸고 그곳에 갔던 것이다. 그녀는 그곳에서 아우카족을 위해 여러 해 동안 헌신하였는데 아우카족의 추장이 어느 날 부인에게 물었다고 한다.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 습니다.” 부인의 말을 들은 아우카족은 감동을 받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 중에 짐 엘리엇을 죽인 청년은 나중에 아우카족의 목사가 되었다고 한다.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스데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 들, 바울 그리고 짐 엘리엇 같은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온 땅 열방을 향해 지금도 전파되고 있다. 고난이 있고 심지어 죽음이 기다릴지라도 영원의 세계에 초점을 맞춘 은총의 자녀들이기에 이들은 주저하지 않고 선교지를 향해 달려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심장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랴(빌 1:8). 지금, 선교가 한창 준비 중이다. CMTC를 비롯한 다양한 선교훈련은 물론이 거니와 교구와 부서에서도 팀들이 구성되어 준비하고 있다. 요즘 제일 바쁘다는 청소년들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를 다녀왔고, 또 준비 중에 있다. 그럼에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선교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한두 번 단기선교를 갔다 왔기에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다고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주님은 우리를 애타게 부르신다. 주님의 부르심이 들리는가?

모든 일을 들으니라

출애굽기 18장 · 찬송가 501장

6

주 일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르비딤 전투에서 승리한 직후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였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1절).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당시 주변 민족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소문이 멀리 퍼져 나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소문, 곧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롬 10:17). 구원의 소식, 은혜의 소문을 듣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문을 부지런히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누구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은혜의 소문을 들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피흘려 주신 주님의 은총을 부지런히 증거하고 외쳐야 합니다. 이방인의 제사장 이드로가 이스라엘의 구원 소식을 듣고 모세를 찾아와 자세히 사정을 들어 확인한 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에 대해 자세히 듣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전해야 하는 복음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함”(출 18:8)

기도제목

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전파하는 선교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거룩한 백성

출애굽기 19장 · 찬송가 508장

출애굽 후 석 달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1절). 그들은 출애굽한 후부터 제 이 년 이 월 이십 일에 시내 광야를 떠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곳 시내 광야에 머물렀습니다(민 10:11~12).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6절). 이는 이스라엘이 세상의 모든 나라 중에서 특별히 구별되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이 열방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복음 증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혈통적 이스라엘의 제사장적 사명은 온 인류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사함을 위한 거룩한 십자가의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마감되었습니다. 이제 그 제사장적 사명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 삶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되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며(롬 5:21) 하나님과 모든 인류를 화평케 하는 사역, 즉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출 19:6)

기도제목

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복음을 증언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걸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출애굽기 20장 · 찬송가 407장

8

화요일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영광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인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17절은 영원한 도덕의 기준인 십계명을 기록하고 있고, 22~26절은 종교 생활과 관련된 2개 조항의 의식 율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십계명의 제정자가 하나님임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어서 3~11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룬 1계명부터 4계명까지, 12~17절은 인간과의 관계를 다룬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법을 통해서 당신이 택한 백성들이 영적인 풍요를 누리기 원하셨고, 선민으로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같은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이며 사랑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출 20:3)

기도제목

① 죄와 함께 거하는 것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충현의 재단들(유지 · 동산 ·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십자가의 사랑

출애굽기 21장 · 찬송가 304장

선민 이스라엘의 행동 규범에 있어 뼈대를 이루는 십계명과 여호와 종교의 순수성 보존을 명하고 이어 십계명의 실제적인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제5, 제6계명에 관한 율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동체 생활에 꼭 필요한 것으로 여러 가지 일반적인 경우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1절은 종에 관한 규정을, 12~17절은 생명 보호에 관한 규정을, 18~36절은 부주의에 관한 규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법의 규정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인간을 존중하며 사랑하는 섬세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1~11절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 남종과 여종의 관계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보잘것없고 천대받는 존재인 노예 신분에 불과한 사람들에게까지도 깊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분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 모두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아무리 심각한 죄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탕자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곧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출 21:1)

기도제목

① 축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느끼게 하소서. ② 당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중심으로 주님의 교회(마 16:18)를 세우는 데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조건 없는 사랑

출애굽기 22장 · 찬송가 311장

10

목요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1~23:19까지 이어지는 시내산 율법 조항의 일 부분입니다. 1~15절에서는 손해 배상의 법을 다루고 있고, 16~17절은 혼인 빙자 간음 사건의 처리 규정을, 18~20절은 사고, 변태 성욕자, 우상 숭배자 등에 대한 사형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대한 신성 모독, 그리고 창조 원리에 대한 모독이라는 점에서 동일성을 갖습니다. 한편 21~27절은 약자들을 위한 사회보장법을, 28~31절은 신정국가의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 의식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율법인 이 말씀에 나타난 규례들 중에서 특징적인 것은 이방 나그네와 고아나 과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이방 나그네에 관하여 율법은 그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사랑을 그들의 이웃과 기꺼이 나눌 것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말 할 수 없는 대속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버려진 영혼, 소외된 영혼, 잃어버린 영혼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소외된 영혼, 상처받은 영혼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출 22:22)

기도제목

① 주의 사랑, 즉 복음을 기꺼이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2011년 겨울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풍성한 말씀의 잔치(딤후 3:16)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이 말씀은 20~22장에 열거된 일반 규범 마지막 부분의 결론으로 공동체 전체가 지켜야 할 사회 정의와 종교적 규례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1~13절에서는 부당한 증언이나 불공정한 재판의 금지와 같은 사회 정의에 관한 규례가 나타나고, 14~19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에 관한 규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30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들의 문화를 본받지 말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례는 결국 율법의 최종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도록 보호하는 데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민족의 문화를 본받지 말고 율법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며, 선하고 공의로운 삶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요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롬 12:1~2). 이것이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로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는 죽고 십자가만 높이 세워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출 23:21)

기도제목

① 세상과 융합된 복음이 아닌 순수한 복음 안에 있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체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 단을 쌓고 화목제를 드린 후 율법을 준행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친히 율법과 계명을 새긴 돌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돌판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간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준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9~12절). 하나님은 모세를 따로 부르시고,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과 사십 주야를 함께 지냅니다(13~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함으로 율법 준수를 맹세하였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공식적인 언약 체결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희생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명과 삶을 다 바쳐 언약을 지키겠다는 맹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맹세를 지키는 데 실패하였고, 율법은 오히려 심판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피를 통한 언약의 준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이 아닌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기초는 여호와와의 모든 말씀(3절)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되었습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말씀이며, 이 말씀이 언약인 것을 깨닫는 영의 눈이 열리어 이 언약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출 24:8)

기도제목

① 우리의 남은 삶이 언약의 피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

선교팀에 합류하며 열심히 훈련을 받으면서도 내내 영적으로
 부족함을 느꼈다. 그러나 ‘영적 무장이 덜 되었어도 무지하고 나
 악한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뽑아주셨으니까 주님이 능력 주시겠
 지’ 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다. 마지막 영성심사 때 이런 질문을 받
 았다. “만약에 선교지에서 죽게 된다면 본인은 어떻게, 가족은 어
 떤가요? 슬퍼할까요?” 너무 당황스러웠다. 그런 상황에 처하면
 나는 담대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가족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아이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만은 꼭 지켜야 한다’ 라고 유언 같은 말을 하였다.

선교지에 도착하여 정탐사역을 나갔다. 아름답고 소박한 마을
 이었다.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모두 낱아 즐망즐망 다
 들 행복해 보였다. 삼모작 농사를 하기 때문에 큰 가난은 없을
 것 같았다. 그들만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다지 아쉬울 것이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
 른다는 것이 문제였다.

어느 마을에서 청년들이 배구를 하고 있었다. 말씀을 전하고
 서로 손잡고 찬양을 했다. 장난으로 받아들이는 청년도 있었지만,
 오히려 나는 그의 눈을 보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찬양을 하였다.
 그도 나중에는 암전해지며 주님을 영접했다. 축호전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마을 어귀에 있는 논에서 중년의 여인들이 벼를 베고 있었다. 그곳으로 달려간 남자 집사님은 그들 대신 벼를 베고, 우리는 말씀을 전했다. 모두들 어찌나 진지하게 듣는지 우리는 신이 나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반복해서 전했다. 서로 손을 잡고 우리말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이 이 마을에서 예수님을 믿는 뿌리가 되어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했다. 논에서 만난 여인들과 청년들이 그 마을 교회의 일꾼이 되어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머릿속에 그리며 기도했다.

매년 선교 때마다 느끼지만 나의 '열심'으로는 되지 않음을 깨닫는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한 번 깨닫는다. 돌아와서는 계속 선교지의 말을 속으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곳에 뿌린 복음이 많은 열매로 맺어지기를 소망하며, 생각나는 영혼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한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선교사다'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중단 없는 선교를 다짐한다.

황경분(권사, 2교구)

성전의 원형이 된 성막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짓기 위한 예물을 가져 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장차 성전의 기원이 될 이 성소는 신정국가가 될 이스라엘 민족의 구심점이 될 수 있기에 예물로 성의를 다해야 했습니다(1~9절). 하나님은 성막에 소용되는 기물들의 제작 방법을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증거궤의 모양을 자세히 말씀하시고(10~22절), 다음으로 진설병을 놓는 상(23~30절)과 그곳에 놓을 등잔대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31~40절).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물 하나까지도 자세히 설명하심은 성막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참된 성막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으로 영원하고 참된 성막을 세우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것임을 보증하셨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각 성도의 인격 안에 보혜사 성령의 내주하심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곧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고전 3:16).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 안에서 새롭게 된 주의 백성이며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육신의 성욕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을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와 깊은 통곡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출 25:1)

기도제목

① 예수님을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참 구주로 믿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출애굽기 26장 · 찬송가 287장

14

월요일

성막에 사용되는 기구를 말씀한 앞 장에 이어 성막 본체에 관한 하나님의 지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내부와 외부로 덮는 휘장 제작법에 관해 언급하고(1~14절), 성막을 지탱하는 널판과 조각목 띠에 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15~30절). 마지막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그 사이에 칠 휘장에 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31~37절). 성소와 지성소는 성막 전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성소와 지성소인데, 이 두 곳은 같은 공간에서 사이를 가르는 휘장에 의해서 구분됩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구별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통하여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마 27:51).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 단번에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이며 주께서 베풀어 주신 말할 수 없는 은총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진노의 자녀로 멸망받아 영원한 영벌에 처할 죄인의 신분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증거하고 구원을 찬양하는 믿음의 실천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출 26:33)

기도제목

①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제단과 그에 따른 제사 기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성막 뜰에 관한 규정을 비롯하여 등에 사용될 기름과 등불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죄 사함을 받는 영적 장소였습니다. 이 단의 불은 여호와께서 직접 붙이셨으며(레 9:24), 또한 꺼지지 않도록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레 6:9). 제단은 죄인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죄함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설명해 주며,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거룩한 희생의 예표이자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으로 거룩한 제사를 드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막 제도 가운데 감추어져 있었던 구속의 모형은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히 8:1~6).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믿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지은 죄를 낱알이 다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뜰’은 ‘좁은 장소’, ‘괴로움’을 뜻하는 데 ‘성막의 깊은 뜰’은 인간을 괴롭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에 관한 규정이 언급되고 있는데(16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문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요 10:1~9). 우리는 제단의 번제물이 되신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삼 규빗으로 하고”(출 27:1)

기도제목

① 주의 일을 하며 섬길 때 나의 공로를 찾지 않게 하시고 값없이 제단에 번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공로만 찬양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제사장의 옷은 거룩하게 구별되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신적 영광과 권위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에 관한 규정과 복식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나아가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히 4:15~16).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며 세우십니다. 주신 직분과 사명을 순종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같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사랑과 희생, 봉사와 섬김으로 주님께 순종하여야 합니다(계 2:10).

에봇과 흉패 그리고 우림과 둠뎀 등 그 밖의 복식에 관한 모든 규정은 각각 어깨 위에 정사를 매고 모든 백성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을 가슴에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동시에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와 거룩함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좇아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며 충성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딤후 3:15).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이 직분을 하나님 앞에 행할 것을(41절) 명하십니다. 거룩한 삶은 구별된 삶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말씀에 근거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네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출 28:1~2)

기도제목

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인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순종하게 하소서. ②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양로원, 함양충현농원) 및 준공된 자연장(납골시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2)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규정과 그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위임식에 필요한 제물들과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제사장들의 준비와 속죄제와 번제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과 절차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성결과 제사장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속죄하여야 한다는 진리를 분명하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진정한 헌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과의 진정한 회묵의 필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히 5:1).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 제사장들에게 있었던 거룩함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절망의 땅 애굽에서 구원하신 까닭은 그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결코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그들과 교제하며, 더 나아가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거룩한 뜻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하는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요 19:30).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계를 맺으며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결하게 나아가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려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숫양 둘을 택하고”(출 29:1)

기도제목

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함을 더 깊이 깨닫게 하소서. ②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출애굽기 30장 · 찬송가 267장

18

금요일

성막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할 제사장의 직무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신 후 다시 성막 제작에 필요한 기구를 제작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처음 부분은 분향할 단에 관한 규정으로써 단의 제작과 단을 안치할 장소, 그리고 단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분향할 때 단에서 피어오르는 향은 성도의 기도(시 141:2, 계 5:8)를 의미하는데 단을 거룩한 것으로 규정하시고 단에서 피올 향 역시 등불과 함께 대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하신 것은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과 더불어 '성도의 기도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임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며 다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요일 5:14).

제사장들은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물두멍에 담긴 물로 수족을 씻어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만 합니다. 광야지대에서 먼지와 흙으로 더럽혀진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종교예식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죄를 씻어낸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두멍에 담긴 물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요일 1:7).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엡 2:13)는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출 30:20)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② 2011년 제1차 청지기훈련(2월 25일 금요일, 7시)에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여 참석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영원한 언약 안식일

출애굽기 31장 · 찬송가 242장

성막 건축과 함께 말씀하신 규정대로 모든 기구들을 제작할 사람으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위하여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으며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습니다. 오직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고전 1:26)를 택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지명하시고 천사도 흠모할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시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막의 모든 제도는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 주는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13~17절).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눅 6:5). 안식일의 주인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거룩함을 입습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구원을 찾습니다. 안식일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삶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출 31:16)

기도제목

① 약속의 언약을 소망하며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믿음의 실천 기도의 실천

지난 2010년 제3차 청지기훈련의 말씀은 2009년도 제1차 청지기훈련 때 부터 시작된 기도 시리즈의 결정판이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을 구 하는 기도만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일침을 가한 은총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장 성경적이고 복음 중심적인 기도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청지기훈련 말 씀을 되짚어 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도(시 16:1, 2009년 제1차)는 예수님 자신의 기도와 믿는 자들의 기도가 무엇인지 간단명료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특별 기도(눅 6:12, 2009년 제2차)는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기도의 본이 무엇 이며, 특별 기도를 언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으며, 우리 교회 에 특별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무지한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간구(눅 23:34, 2009년 제3차)는 교회를 온통 눈물 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무지한 죄인들이 바로 매번 핑계 대는 우리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눈물은 이내 찬 양과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를 모두 경험하였습니다.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사 53:12, 2010년 제1차)은 다시 한 번 범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것의 상속자 되시 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실천, 즉 기도자가 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마 6:13, 2010년 제2차)는 기도의 핵심 내 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구속자의 기도(요 17:24, 2010년 제3차)는 지금까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정 리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기도의 실천입니다. 청지기훈련의 말씀이 생수가 되어 우리의 무릎까지 이어지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모세가 시나산에서 40일 동안 성막제도에 대한 계시와 십계명으로 일컬어지는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타락하여 우상을 섬기며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계명(출 20:1~5)을 통하여 엄격하게 금지하신 우상 숭배를 구체적으로 행하여 불순종하며 배반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확실히 그들의 믿음은 철저하게 왜곡되었으며 완악함과 교만함으로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출 20:2).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것이 모세(1절)라면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10절)와 모세의 책망(21절)에 대한 아론의 변명은 철저하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며 그가 만든 송아지 형상에 대하여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라고 늘어놓는 궁색한 변명에서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말씀으로 지적받을 때 회개보다는 이러한 변명을 늘어놓는 목이 뻗뻗한 백성입니다. 죄 앞에 변명을 늘어놓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더러운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눅 5:32). 죄를 지은 우리에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은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 즉시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벧후 3:9).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출 32:21)

기도제목

① 목이 뻗뻗한 백성이 우리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소서. ② 1년 1인 1명(1 · 1 · 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여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언약의 파기와 관계의 단절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시어 그들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13절). 그렇지만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그들의 여정에는 결코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3절).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기도가 계속됩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슬퍼하며 진심으로 회개합니다(4절).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장신구를 떼어 낼 것을 명령하셨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면 용서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며 “내가 친히 가리라”(14절)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주님의 영광을 위한 모세의 간절한 기도는 응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렘 29:12~13).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들으시겠다는 거룩한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그분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의 전에 나아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앞이니라”(출 33:17)

기도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① “내가 친히 가리라 너를 쉬게 하리라” 응답하시는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2011년, **충현**의 모든 성도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 3:5**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포도나무와 가지

요한복음 15장 · 찬송가 430장

성도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서 열매를 맺을 의무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는 농부에 의하여 잘립니다. 열매 맺는 다른 가지의 영양분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실을 맺는 가지는 농부가 귀히 여겨 깨끗하게 해 줍니다(2절). 이는 더 좋은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교훈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4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나무의 뿌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려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제자들이 맺어야 할 열매가 사랑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12절)는 계명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사랑으로 인내하며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

기도제목

①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 그 안에 거함으로 열매 맺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6절) 제자들을 보며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결과를 낳음으로 오히려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7절). 그리고 그들의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인들이 복음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때가 이르면 죽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시는데, 이것은 그들이 아버지와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유대인들은 모든 믿는 자들까지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불안과 근심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을 체험한 후부터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었고, 오히려 기쁨과 담대함으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써 담대하게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며 기쁨과 감사로 영원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33절).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모든 성도는 담대하게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요 16:7)

기도제목

①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담대하게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아버지여

요한복음 17장 · 찬송가 294장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분명하고도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과 아들을 사랑하심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워지자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믿는 자들이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으로써 믿게 된 모든 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을 우리러 기도하시면서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 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소유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3절)이라는 말씀은 바로 구원의 핵심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믿는 자가 하나 되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 달라고 간구하십니다(21절).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삶을 나누는 기도이자(1~5절),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6~12절),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며(13~19절), 예수님의 영광을 나누는(20~26절)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말씀과 영광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어 그 사랑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 17:21)

기도제목

① 아버지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 주신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② 2011년 제1차 청지기훈련(2월 25일 금요일, 7시)에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여 참석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께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려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수난을 통하여 성취하신 구속 사역을 중언하고 있습니다. 1~11절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아셨으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대인들과 로마의 군인들에게 스스로 잡힘을 당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은 그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희생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12~27절은 예수께서 당시 대제사장이던 가이바에게로 끌려가시던 중 이전의 대제사장으로서 실질적 권세를 갖고 있었던 안나스의 집에서 심문 받으신 사실과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에 대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28~40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본디오 빌라도의 심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무죄 선언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유월절 특사로 바라바를 택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누구를 찾느냐”(4,7절)는 질문을 하시며 “내가 그니라”(8절) 답하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11절) 말씀하시며 안나스의 법정 앞에 서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으시려는 말씀을 응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빌라도 앞에 서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오늘 만나기 원합니다. 베드로를 향해 울던 닭의 울음소리에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고 그 사랑에 굴복하여 회개하는 은총이 임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요 18:11)

기도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① 온 성도가 닭의 울음 소리를 듣는 영의 귀가 열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을 깨닫게 하소서. ② 제 1차 청지기훈련을 통하여 청지기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깨달으며 참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소서.

사형선고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장사되기까지의 고난 주간 금요일 낮의 사건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1~16절은 유대 주재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의 무죄를 확인하였음에도 사형을 선고하고, 17~30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로마 군병들에 의하여 능욕을 받으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패역함은 추악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몸까지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의 패를 직접 써서 붙였는데, 그는 그 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붙잡기에 신성모독과 정치적 반란으로 규정하여 주님을 정죄했지만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참 유대인의 왕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31~37절은 이미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금 확인하기 위하여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름으로 물과 피가 흘러나왔으나 다리는 꺾지 않은 사실을 말씀하며 이 모든 일이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거듭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성취된 구속 사역임을 성경은 입증하고 있습니다(35절). 이 증언은 참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실존입니다. 이 확신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되는 은총이 있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요 19:30)

기도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① 참이며, 실존인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만 이야기로 치부하지 않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1·1·1)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회개합니다

오직 구원함을 받은 천국 시민만을 위한 주님의 기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로 인한 영원한 영광 등에 관한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내 마음속 깊이 안타까움이 자리 잡았다.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자국 자국마다 지은 것은 허다한 죄뿐인데, 나를 구원하신 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사실이 나에게 너무나 큰 충격과 놀라운 감동으로 다가왔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피땀 흘린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 벅차오르는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누가 나를 위해 그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해 줄 수 있겠는가? 나의 부모가, 배우자가, 나의 자녀가, 우리의 이웃이? 아니다. 그들이 그럴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가 잘 알 것이다. 오직 나를 진정 사랑해 주시는, 영광만을 받으셔야 할 죄 없는 우리 예수님만이 그 일을 감당해 주실 수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나의 자만과 교만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설교와 말씀을 들었음에도 나를 내가 만든 의인이라는 틀 속에 자리 잡게 해 놓고 그 속에서 살게 하였다. 주님의 피땀 흘린 기도와 무관하게 살아온 나의 삶은 어찌 보면 주님의 기도가 전혀 필요 없는 자 같았다.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주님과 교통신 없는 한 순간도 숨을 쉴 수조차 없는 나약한 존재인 나는 한 없이 깨어지고 부서져야만 한다. “회개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요한복음 20장 · 찬송가 162장

지상 최대의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의 증거에 따라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의 빈무덤을 확인한 사실을 상세히 증거합니다(1~10절). 그리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속에서 두 천사를 목격한 사실과 부활하신 예수께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또 그녀로 하여금 당신의 부활과 승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가서 증거하게 하신 사실을 보도합니다(11~18절). 19~23절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가롯 유다와 도마를 제외한 열 제자들(눅 24:33)에게 직접 나타나사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음을 말씀합니다.

24~29절은 제자들에게 보이신 지 10일 후에 도마를 포함한 열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사실을 말씀합니다.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했던 도마는 직접 예수를 목격한 후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28절)”라고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도마의 고백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증언하는 이 복음서의 결론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는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낮고 천한 여인을 부활의 첫 증언자로 쓰시는 주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뱃속 깊이 파고 들어 십자가와 부활의 증언자로 부르시는 부름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20:31)

기도제목

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의 고백을 우리 입술에 허락 하소서. ② 예수 그리스도를 참 주인으로 고백하는 제1차 학습세례식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행하신 많은 표적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하심은 자신이 승천하신 후의 일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잘 깨닫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을 때 그 밤에 그들은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짐으로써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은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식사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자신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 있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이전의 인간적인 자신감이나 패기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기에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시고 귀한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선교의 장을 열어주신 주님의 다시 세워주심이 있었기에 요한복음에 이어 전개되는 사도행전을 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여 고기 잡으러 나간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사명을 주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도 선교의 장을 열어주십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온 성도가 단기선교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요 21:17)

기도제목

① 역설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자신의 생각으로 인해 방향치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순종하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구약예배

구약예배

2월 구약교재 초점

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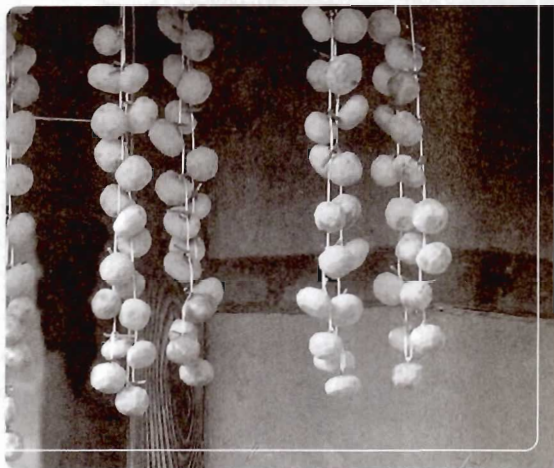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형벌의 자리에서 옮겨 영원한 생명과 은총의 천국으로 가게 했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 생명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매순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음성이 담긴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이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할 지라도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2월 4일 | 시편 50:1~15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2월 11일 | 요한일서 4:7~21
사랑의 증거
사랑의 십자가를 전하자

2월 18일 | 골로새서 3:1~2
부활의 삶
부활의 생명을 품고 살자

2월 25일 | 시편 17:14~15
진정한 만족함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자



구역예배 진행

●●● 구역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교재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 구역교재 전개

도 입

민 음으로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0분

전 개

말 씬으로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소요시간 25분

결론 및 적용

십 자가로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5분

2011년 2월 4일

1 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 초점 |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 찬송 |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 본문 | 시편 50:1~15

^①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②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 ^④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
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⑤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주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주일에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 설교하지만 그 메시지는 실제 하나님의 메시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성경본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지구의 모든 곳에 미칩니다. 그분은 전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확실히 알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 50:1 _____

시 50:5 _____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면 그 시간에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 신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은 찬양으로 채워집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읍시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주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공의임을 말씀하십니다.

시 50:6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항상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볼 뿐 공의를 행하시는 분으로는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기 원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말한다는 것도 알기를 원하십니다.

※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무엇인지 각각 설명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그분의 공의는 십자가에서 확증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죄를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킴으로써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할 죄인들입니다(롬 3:10,23).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충족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 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천국의 기쁨입니다.

계 19:1~2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 50:9~11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해 줍니다.

빌 4:19

※ 마태복음 6:25~31 말씀이 주는 확실한 메시지를 정리한 뒤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자원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들을 어떻게 채워주실지에 대해서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 50:15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 공의, 사랑이 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첫 번째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 주십니다.

막 4:37~39

렘 33:3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어떤 일에도 걱정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특별히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고통의 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며,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눅 23:42~43

하나님이 공의로우신지 아닌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벧전 2:4~5 _____

히 13:13 _____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확실하고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달콤한 세상의 미혹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 믿음의 기도 |

1.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 귀를 열어 주소서.
2. 매순간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여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의 가정에서 십자가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2011년 2월 11일

2과

사랑의 증거

| 초점 |

사랑의 십자가를 전하자

| 찬송 |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 본문 | 요한일서 4:7~21

⑦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⑧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 ⑨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⑩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오늘 성경본문은 요한의 가장 위대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요한은 요한 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이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전도와 기독교의 부흥을 위하여 이 다섯 권의 성경이 널리 사용되는 이유입니다.

※ 사도 요한에 대해서 아는 대로 나누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쓴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입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는 구절로 복음을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요한의 증언은 오늘 본문말씀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강조되었습니다. 요한이 증언한 사랑의 증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본다

참 사랑의 영의 증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봅니다.

요일 4:16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풍성한 삶은 하나님으로 풍성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심오해서 각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과 확고한 관계를 맺게 합니다.

요일 3:1

예수님은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들을 부르셨습니다(막 1:19~20). 이 부르심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즉시 자신들의 일과 가정을 포기했습니다. 이 사랑의 부르심에는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거절할 수 없는 매우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되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 사도 요한이 목격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보십시오.

(눅 9:54~56 : 요 4:7~30, 8:10~11)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본다

참 사랑의 영의 증인은 사랑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봅니다.

요일 4:7~8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다른 신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자기희생적 사랑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비록 실제 삶에서 희생을 요구받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자신이 가진 자원들을 기꺼이 모두 내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습니다.

요일 4:11

요일 3:14~18

요한은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묘사할 때 '살인자'라는 매우 강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복음에서 명하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도 믿음의 실천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습니다. 우리의 영적 체온은 사랑의 온도계에 표시됩니다. 이기심은 사랑과 정반대입니다.

※ 사랑이 필요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누구인지 살펴보십시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참 사랑의 영의 증인은 십자가에서 사랑의 최고의 모델을 봅니다.

요일 4:9~10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는 최고의 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요한은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의 부락을 받았습니다(요 19:26~27).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목격한 최후의 제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그의 증언은 분명합니다.

요 3:16

요이 1:6

요한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셨고, 자신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 내가 깨달은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십자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보여 준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십자가에 대한 증거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요일 4:18~21 _____

갈 6:14 _____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아가 사랑의 향기를 뿜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이 모든 죄인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사랑의 십자가를 전하십시오.

| 믿음의 기도 |

1. 십자가 사랑으로 매순간 거듭난 삶을 살게 하소서.
2. 십자가 사랑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2011년 2월 18일

부활의 삶

| 초점 |

부활의 생명을 품고 살자

| 찬송 |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 본문 | 골로새서 3:1~2

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②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목사님들은 종종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행복한 결혼, 건강, 사랑스러운 아이들, 성공적인 일들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 할 것입니다.

※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나누어 보십시오.

※ 다음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 예수님을 참 구주로 믿으십니까?
- 만약 그렇다면,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 무엇이 부활의 삶입니까?

성경은 만약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땅의 것들이 아닌, 오직 위의 것들만 생각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삶은 이 땅의 것들에 대해 생각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오직 위의 것들에 초점을 맞추도록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리스도의 삶은 지극히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생명의 신호를 찾는다

부활의 삶은 생명의 신호들을 찾습니다.

골 3:1 _____

“살리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새 생명은 생명의 신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기 위해서 자아를 죽여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를 대신한 그의 희생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새 생명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옛 본성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실 때 죽습니다.

골 2:12 _____

롬 6:4~6 _____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전하는 또 다른 생명의 신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너 이상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갈 2:20 _____

위의 것에 초점을 맞춘다

부활의 삶은 위의 것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골 3:2 _____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위의 것들을 찾는다면 우리의 생각은 그것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위의 것들은 진실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가장 먼저 구해야 합니다.

마 6:19~21 _____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성경을 읽고 이후에 다른 일을 해야 하는 우선순위 매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활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일이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요일 2:15~17 _____

마 7:21 _____

골 3:9 _____

땅의 것을 거부한다

부활의 삶은 이 세상을 따르거나 이 세상에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골 3:10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며 위의 것들에 자신의 생각을 고정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땅의 것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며 새롭게 되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롬 12:2

요 16:13

만약 우리가 위의 것을 계속 찾고 생각한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의 것들을 찾으며 자신의 것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원하십니다.

요 14:26

※ 내가 버려야 할 땅의 것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품고 사는 삶에는 위의 것들로 넘칩니다. 우리는 생명의 신호들을 찾고,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추어야 합니다.

고전 15:31 _____

딤후 1:15 _____

※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정의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기를 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음성이 우리를 인도하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 믿음의 기도 |

1. 부활의 삶을 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2. 매순간 회개하며,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추게 하소서.
3. 모든 구역원의 가정이 부활의 생명으로 넘치게 하소서.

2011년 2월 25일

진정한 만족함

| 초점 |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자

| 찬송 |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찬송가 168장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 날

| 본문 | 시편 17:14~15

¹⁴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 랫
 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
 들에게 물려 주는 자니이다 ¹⁵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
 오리니 꺾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현실에서 누리는 축복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에 만족합니다(시 17:14). 그런데 참 믿음의 사람인 다윗은 그와 같은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 만족을 원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기도, 보호 그리고 완성에 대한 그의 고백으로부터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정결해지기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윗은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찾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날 때 완전해지기를 갈망했습니다.

시 17:1 _____

시 17:8 _____

시 17:15 _____

많은 사람이 성공, 명예, 세상적인 부 등등 이 세상에서의 만족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문제들과 꺾인 꿈들은 때때로 신자들조차도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시 17:15 / _____ 겔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소망은 다윗이 심각한 시련을 받는 동안 그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사악한 자들의 압제와 악한 원수들에 의해 핍박을 받는 동안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귀중한 소망은 모든 것을 잃었던 욥에게도 있습니다. 끔찍한 고통 속에서 그는 구속자를 바라보며 간구했습니다.

욥 19:25~27 / 내가 알기에는 나의 □□□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을 보리라 내가 그를 □□□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다했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욥은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얻는 소망이 있었기에 극한의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욱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까? 이제 곧 임할 심판의 때에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모든 것은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살전 4:16~18 _____

우리가 부활할 때

부활할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경험할 것입니다.

시 17:15 /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니 _____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장차 부활할 것을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죽어 눈을 감았을 때 이내 천국에서 눈을 떠 살아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삶의 마지막 순간이 올 때 제발 울지 말고, 다시 깨어날 일로 인해 놀라지 마십시오. 다윗은 만약 그의 원수에 의해 자신이 죽임을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매장해도 무덤 밖으로 나올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다윗은 시를 써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눅 24:5~6 _____

고전 15:20 _____

부활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죽음의 상처를 없애줍니다. 죽음에서 승리할 우리의 미래는 놀라운 평화로 가득할 것입니다.

고전 15:55~58 _____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것입니다.

시 17:15 /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니 갇 때에 _____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릴 그때는 진실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요일 3:1~3 _____

※ 나의 진정한 만족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그것을 찾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나팔 소리가 날 때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 깨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될 거라는 기대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합니다. 이 순결한 소망은 유혹을 이기게 하며 실패 후에도 용기를 갖게 합니다.

약 4:8 _____

만족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무익한 탐구를 멈추고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소망, 무한한 만족을 주십니다. 제발, 그의 초대에 응하여 우리의 영혼을 완벽하게 만족시켜주실 한 분을 찾으십시오.

요 6:35 _____

요 14:1,6 _____

지금 당장,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십니다. 이 얼마나 큰 은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참된 만족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 믿음의 기도 |

1. 참된 만족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소서.
2. 두 세계를 사는 우리의 초점을 천국에 두게 하소서.
3. 우리 구역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 서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남성구역예배’는 ‘구역예배 교재’ 중
‘제3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남성 구역 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부활의 삶

- ⁽¹⁾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 ⁽²⁾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 (골로새서 3:1~2)

교회 목사님들은 종종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들은 행복한 결혼, 건강, 사랑스러운 아이들, 성공적인 일들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 할 것입니다. 무엇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여러분은 이 땅의 것들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만약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 땅의 것들이 아닌, 오직 위의 것들만 생각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설교자들은 이 땅의 것들에 의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멋질 수 있는가에 대해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몇 가지 질문을 함으로써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참 구주로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부활의 삶입니까? 부활의 삶은 이 땅의 것들에 대해 생각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직 위의 것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 겸손히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오늘의 성경본문에 집중합시다.

생명의 신호를 찾는다

부활의 삶은 생명의 신호들을 찾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골 3:1)로 시작합니다. “살리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새 생명은 생명의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기 위해서 자아를 죽여야

만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를 대신한 그의 희생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새 생명을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12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옛 본성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실 때 죽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 자신이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롬 6:4~6).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바울은 더욱 더 명료하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또 다른 생명의 신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들은 우리 자신의 것보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행동들을 보여 줍니다.

위의 것에 초점을 맞춘다

부활의 삶은 위의 것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골 3:2). 만약 여러분이 계속해서 위의 것들을 찾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그것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위의 것들은 진실로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가장 먼저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19~21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성경을 읽고 이후에 다른 일을 해야 하는 우선순위 매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활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일이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우리의 영적 심령에 영향을 주어 끊임없이 싸우게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요일 2:15~17).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땅의 것들에 있습니까 아니면 위의 것들에 있습니까? 정직하게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골 3:9). 만약 여러분이 새 피조물이 아니어서 새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의 옛 본성이 여전히 여러분을 통제할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제발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땅의 것을 거부한다

부활의 삶은 이 세상을 따르거나 이 세상에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모방하려는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골 3:10).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며 위의 것들에 자신의 생각을 고정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땅의 것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며 새롭게 되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

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요 16:13). 만약 여러분이 위의 것을 계속 찾고 생각한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땅의 것들을 찾으며 자신의 것만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돕기 원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 14:26).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의 것들을 생각하며 생명의 신호들을 찾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은 이 땅의 방식들을 따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따르기 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11년 2월

Copyright © 2011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진홍웅

집필진 | 양재웅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